

이사

글_김미라(방송작가)



이사를 했습니다. 실은 살던 집에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이사였습니다. 불이 나긴 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한 밤 중에 출동하느라 수고하셨던 소방관들도 “목조주택이 이렇게 버텨주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덕을 많이 쌓으신 모양입니다” 하고 위로를 건네고 가셨습니다.

지붕의 연통에서 뿌린 물이 흘러내려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바닥의 불길 때문에 소방관들이 마룻바닥을 도끼로 부술 때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화재는 진압이 되었습니다. 소화기 두 대에서 뿜어진 분말과 지붕으로부터 쏟아진 물과 재, 불에 타면서 생긴 냄새들이 온 집안에 가득해서 그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안에서 짐을 모두 들어내고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웃들은 당장 나가서 지낼 곳이 마땅치 않게 된 우리 가족에게 서로 자기 집에 와서 묵으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밥을 챙겨주고, 마음까지도 챙겨준 이웃들 때문에 나는 결국 불이 났던 날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머무른 작은 오피스텔을 얻을 때까지 일주일이나 이웃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 가득했던 짐을 다 빼고 나니 아, 이 집이 원래 이렇게 여백이 아

름다운 집이었지, 싶었습니다. 나무 향기로 가득했던 집, 창 밖에 서있는 두 그루의 벚나무가 봄날에는 많은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멋진 단풍을 선보이던 집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내게 이렇게 많은 행복을 준 집이 있었다는 감사를 오래 잊고 살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일상이 아무런 탈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늦가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매일 같이 집이 불탄 상처를 극복하고 그동안 낡았던 곳들을 수리하며 새로워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이 새로워지는 동안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며 살았습니다.

온갖 짐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여백을 남겨두고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빈자리는 메워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버리고, 빈자리는 빈자리대로 둘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해를 향해 시간의 이사를 준비할 때에도, 마음 안에 여백을 남겨두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합니다.

파란만장했던 한 해의 끄트머리에 서서, 그 어느 해보다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 덮어두었던 노트를 꺼내어 이렇게 씁니다.

당신,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잘 살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서러운 날들도 많았을 텐데 그 서러움 가슴 안에 접으며 잘 견뎌주어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에서도 배우고, 불행한 일을 딛고 일어설수록 더 강해지는 당신, 고맙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해 주는 당신,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왔던 올 한 해,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은 당신, 아름답습니다. †

이 글을 쓴 김미라님은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KBS 1FM '노래의 날개 위에', '당신의 밤과 음악', '세상의 모든 음악' 을 집필하는 등 25년 넘게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기> <천 개의 절망을 이기는 한 개의 희망> <나를 격려하는 하루> <위로> 등이 있습니다.